

‘전남기록원’ 건립 후보지 도립대 장흥캠퍼스 낙점

총645억원 투입 2030년 12월 완공 계획
道, 8개 지자체와 공조 국비 지원 건의

〈속보〉전남도가 도내 중요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에 '전남도기록원'(조감도)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가 64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 시·도와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



도로 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천47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총 645억원이다.

전남도는 학생 수 감소 속 2005년 담양캠퍼스로 통합·이전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

지에 기록원을 건립함으로써 약 2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던 도유지를 활용하는 한편,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과 연계해 국립대와 공공기관 간 상생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록원이 건립되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도 보존·관리하고 전시할 수 있다.

기록원은 군관리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를 마친 후 2027년 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기록원 건립 예산 전액을 온전히 전남도

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건립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8항에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록재정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 자체 부담 입장을 고수하고 국·도원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년 광역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운영이 의무화 됐음에도 현재 기록관을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는 경남도(2018년 준공), 서울시(2019년)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2026년 개원), 경북도(2027년 개원)는 설립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구시·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예산 확보와 기본 계획 수립 절차를, 인천시·충남도·전북도·제주도·부산시·세종시 등 6개 지자체는 연구용역을 거쳐 설립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남도는 현재 기록원 건립을 추진 중인 8개 지자체와 공조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록원을 통해 도민과 함께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해 우리 지역에 대해 더 잘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새 정부 '국정기획위' 내주 출범 60일간 100대 국정과제 밑그림

위원장·3명 부위원장 등 기획위원 55명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
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한다”면서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기존 6개에서 7개로 확대되는 분과위의 위원
장직은 이날 중으로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3명의 선임 규정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전례에 따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덕흥파크골프장 준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서구 덕흥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해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티타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市・ACC, 亞문화도시 위상 제고 협력 강화

양궁대회 포토존 설치 등 공동 홍보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1일 ACC에서 제1차 정례협의회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성공 개최 협조,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 2025 광주 방문의 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ACC 개관 10주년 행사 상호 홍보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ACC는 ‘광주 방문의 해’ 봄업을 위해 ACC 하늘마당 내 홍보 캐릭터 포토존 설치를 제안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 개최 협조 및 행사 차량 주차장 제공 등에 적극 협력

하기로 했다.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문화 행사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을 이어왔다. 2023년 9월 ACC 내 옛 광주여고 체육관을 증·개축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유치·개관했으며 ACC 공간을 활용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 광주시립미술관과 연계한 '아시아예술정원' 전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19~20일)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ACC 정례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양 기관이 번갈아 개최하며 협력 과제 발굴, 추진 현황 공유, 공간 활용, 공동 홍보 등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다. /변은진기자

▶1면 '지하철 2호선 1단계'서 계속

박수기 의원은(더불어민주당·광산5)은 “지하철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면밀한 공정 검토를 통해 개통 시기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정 초기 단계부터 지연돼 종합 공정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달 내에 재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본부장은 “재조정 이후엔 공사 일정이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도로 복구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문제 역시 당연히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재조정 결과 발표 때 함께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주매일신문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취 / 급 / 품 / 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카트리지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임대 ▪ A/S
- 전산소프트웨어 ▪ 레이저(토너/드럼)
- 각종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대명OA T.375-5880

무안군 공고 제2025-689호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무 안 군 수

1.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628-1번지 등 68필지(11개 구역)

나. 목 적: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다. 근 기: 「농지법」 제31조, 제3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1) 농업진흥구역 32,485.5㎡ → 농업진흥지역 밖 32,485.5㎡

2) 농업보호구역 28,313.4㎡ → 농업보호구역 밖 28,313.4㎡

3)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토지조사: 불임 참조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무안군 홈페이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6. 10. ~ 2025. 6. 25.)

- 열람기간: 08:00~18:00(단, 휴무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나. 제출방법: 의견제출서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 출 처: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39)
(전화: 061-450-4075, 팩스: 061-450-5135)

4.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 절차 이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450-407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 변경 및 해제 대상 중 해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배달사고 및

062-650-2022





광주역 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센터등 무순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은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